

막강 국방력은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

— 防産학회, 창립3주년 「'94훌륭한 防産人」大賞 시상



鄭焜昊 차관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세계차원과 동북아시아 차원으로 구분하여 탈 냉전으로 세계는 화해 무드로 감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긴장 상태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사회 일각에만 연되어 있는 방위산업 경시풍토에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경제력과 결맞는 국방력의 유지가 향후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방위산업학회(회장 白永勳)는 창립 3주년을 맞아 9월 27일 캐피탈 호텔에서 鄭焜昊 국방차관의 특별강연과 함께 「'94 훌륭한 防産人」大賞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鄭차관은 「최근 안보정세와 한국의 방산육성방향」을 주제로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심도깊고 진지하게 제시하여 정부, 학계, 언론계, 업체 대표 등 150여명의 참석자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다.

특히 우리같은 분단 상황이 아님에도 군비 경쟁에 몰두하는 일본, 중국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북 방위전략에 급급하지 말고 21세기 통일후의 민족 생존권과 결부시켜 폭넓은 시각에서 방산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1세기에 초강대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함께 막강한 국방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방산 부품의 국산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열린 「'94 훌륭한 防産人」大賞 시상식에서는 155mm 자주포의 국산화에 기



여한 삼성항공의 李永雄부장과, 한국형 전차의 탄약개발과 재래식 탄약의 파괴력 증대 및 사거리 연장을 실현한 풍산의 高東熙차장과, K1 한국형 전차의 사격통제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현대정공의 安曉哲선임연구원이

선정되어 각각 수상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 행사에는 黃明秀 국방위원장과 羅柄扇 의원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통해 한층 열기를 더해 주었다.

(강연내용 pp. 10~19 참조)

제1회 CALS 국제 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무기체계개발 및 지원의 정보화, 전산화, 자동화 촉진 계기



지난 9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자동화·통합화(CALS)”에 관한 제1회 국제세미나가 民·軍 고위 관계자, 방산업체 및 정보통신업체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국방부와 체신부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공동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CALS 정책 및 적용경험자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방부, 군 그리고 업체에서의 CALS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그 응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국제 CALS 회의에서는 軍과 방산업

체 및 민간제조업에 관련된 수준급 논문들이 발표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방산업체에서는 CAD/CAM 등 설계·제작 분야, ILS분야, 전산화·자동화 분야, 품질관리 관련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영혁신과 무기체계 개발 및 지원의 자동화·정보화 측면에서 최신 정보와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근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WTO 출범과 함께 방산업체도 “정보화·전산화·자동화” 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CALS는 「서류로 이루어지는 설계·제작 등개발이나 군수지원, 수송 및 부품지원 업무 중 기술정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상호 교류함으로써 비용절감과 함께 소요시간 및 지원 시간 단축, 종합품질경영(TQM)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영전략 또는 경영혁신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요즘 관심어리고 있는 업무과정혁신(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및 동시공학(CE : Concurrent Engineering)의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장차 국방과 군의 정보화, 방산업체의 경영쇄신, 그리고 무한 경쟁시대의 비상탈출구 역할을 할 CALS의 적용에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